



치협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의 공동 현안인 구강진료 분담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인력관리, 업무분담에 관한 총체적인 논의를 통해 양 단체 상호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치협과 치위협은 지난 11월 9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구강진료분담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고, 치과진료 분담인력 수급부족의 원인과 원활한 수급조절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강연으로 김윤관 원장은 '구강진료분담인력의 현황'에 대해, 황윤숙 치위협 정보통신이사는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각 단체의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폭넓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003년도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 등 주요 일정이 결정됐다.

치협은 지난 11월 12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제52차 정기 대의원 총회를 내년도 4월 19일 치협 회관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내년도 신년 교례회는 2003년 1월 10일 오후 7시경 치협 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그러나 3년에 한번 열리는 종합 학술대회는 당초 2004년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울지부 행사 등 일부 지부 행사와 겹치는 관계로

다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종합 학술대회가 3년에 한번 치협 주최로 열리게 돼 있어, 지난 제44회 종합학술대회를 2002년 아태회의 때 개최한 관계로 2005년에 열어야 하지만 2005년은 선거가 있는 대의원 총회가 열리는 해로 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04년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치과의사전문직제도와 관련,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가장 큰 쟁점 사항이었던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전문의제도 입법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치과의사전문직제도 시행위원회(위원장 안성모)는 지난 11월 25일 시내 음식점에서 5차 회의를 갖고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인턴병원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구분,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턴수련병원은 기준을 완화해 임상경험을 원하는 치과의사들 모두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 이상의 전문과목이 설치된 병원으로 전속지도전문과는 진료과목별로 1인 이상 배치토록 했다.

레지던트수련병원은 기준을 강화해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 이상의 전문과목이 설치된 병원으로 전속지도전문과는

진료과목의 수와 중요도에 따라 과목별로 달리 정하도록 했다.

전속지도의 자격은 치과대학에서는 조교수 이상, 병원에서는 임상경력 7년 이상으로 정했다.

레지던트 정원 책정기준은 전속지도의 2인 이상인 경우 수련의 1인을 배정기로 했다. 예상되는 총 수련의 수는 최소 치대정원의 12.3%에서 최대 15.6% 정도 되며 전문의 배출은 8%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치과의사전문직제도 최종안은 보건복지부에 제출, 빠르면 이달 말쯤이나 다음달 초쯤에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이날은 또 치과의사전문직제도 시행방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해 공직 대표, 개원의 대표, 정부 관계자, 전공의협의회 대표, 관련 연구자, 법조계 대표 등을 지정토론자로 하는 공청회를 입법예고 기간에 맞춰 개최기로 했다.